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1996년 12월 1일

12월 1일인데 칼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어금니는 부어올라 음식을 씹을 수 없고 편도선의 통증으로 뜨신 물을 삼키기에도 힘에 겹다. 한국산 두툼한 파카를 입고 있는데도 이빨이 달달달 떨릴 만큼 춥다.

이곳 티베트의 죠오공에서 이틀을 머물고 있지만 창뚜 가는 버스는 소식이 없다. 게스트하우스엔 삐걱대는 판자침대뿐, 담요 두 장으로 밤의 추위를 견디어야한다. 화장실은 숙소에서 100m 거리의 강변에 있다. 자연친화적이라서 용변은 비스듬한 언덕아래의 강물로 흘러든다.

문짝이 없는 화장실에서 서로 마주보는 것도 민망스런 일이지만 엉덩이 부근으로 파고드는 드센 바람도 견뎌야한다. 드넓은 강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얼음덩이가 떠밀려 부딪치며 흘러가고 있다.

티베트의 밤하늘은 무수한 별들이 앙상한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듯 가깝게 떠있다. 숙소에서 화장실로 가는 길은 외진 길이라서 대개는 방마다 하나씩 공급되어 있는 세숫대야에다 소변쯤은 간단하게 해결한다.

달빛이 아니어도 티베트의 밤은 초롱초롱한 무수한 별빛으로 꿈과 설레임을 안겨준다. 티베트의 밤하늘은 누구나 시인이 되게 아무나 향수에 젖어 울먹이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온다. 으스스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강물을 바라다보면, 하늘의 별빛을 보면 미치고 환장할 만큼 한국이 그립다. 어머님이 그립다.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그립고 배추김치, 깍두기가 그립다. 길거리의 군고구마, 붕어빵이 그립다. 한국에 가면 짜장면은 언제나 곱빼기로 먹을 생각이고 팥고물찰떡은 배가 터질 만큼 먹을 생각이다.

어린 시절의 광숙이, 길자, 은경이도 보고 싶고 통도사 후원의 행자시절의 눈물방울도 비눗방울처럼 뜨고 있다. 어머니! 길게 부르면 서러운 게 왜 이리도 많은지 생각은 하늘을 날아 고향처마 밑에서 놀고 있다.

주일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당에 가게 되면 주일학교 여선생님도 예쁘지만 사탕이며 빵이며 입이 즐거워 생일 같다. 다만 목사님의 그럴듯한 설교 뒤에 미운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는 헌금을 강요하는 듯한 매미채의 등장은 주머니가 비어있는 내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하나님에게 기분 좋게 바칠 동전이 없어 늘 죄송했고 그럴 때마다 잠자는 시늉도 체면 없는 짓이었다.

교회를 오고가는 길거리에서 어머니는 교과서 없는 활자 없는 말씀의 책으로 어린 나의 가슴에 훈훈하게 군불을 지피시며 꿈의 날개를 달아주셨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에 '손으로 태산을 움켜쥐니 호랑이가 주먹 안에서 울고 입으로 바다를 송두리째 삼키니 뱃속에서 고래가 논다'고 하셨더구나."

"유태인들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친구는 두 세급 위를 사귀고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어도 두 눈은 하늘의 북극성에 두라'는 말씀도 있단다. 오래토록 마음에 담아 희망을 일궈내는 밑거름이 되게 해야 한다."

어머니는 내게 있어 빛이자 부처님이다. 길거리에서 열 번 쓰러져 열 한 번 일어나는 끈질김의 잡초 근성은 어머니의 말씀을 깊이세긴 교육 덕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여행하면서 철이 든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색다른 환경도 익히며 부대끼면서 아파하면서 길을 찾는 것이다. 허허벌판에 홀로서서 절대고독의 의미를 몸으로 부딪쳐 깨달으며 감사와 고마움, 미안함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무수한 길을 걸으며 무수한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윤회하지만 원초적인 타는 목마름과 마음의 허기는 타인(他人)으로부터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인생이란 어찌 보면 짧고 긴 여행이다. 여행에서의 경험은 지혜를 일구는 터전이 된다. 경험은 스승이요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설렘이지만 몸과 마음이 지칠 수 있다. 죽음의 고비도, 뼈를 녹이는 절대고독과 모진병도 역경도 만날 수 있다. 그때마다 '신(神)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신을 만든 사람이 위대하다'는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에 박힌 글이 위안이 될 수도 있을 터이다. 너와 나, 우리 모두는 떠나며 살 일이다.

인생은 어찌보면 짧고도 긴 여행
우리 모두 떠나며 살아갈 일이다

한 생각 툭터진 깨침의 순간은?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선사들의 오도기연(悟道機緣)에는 온갖 사연들이 소개되어 나온다. 참으로 매력 있는 선공부 특유의 일화들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초월해 설해져 있는 것이 많다. 깨침의 순간을 '한 생각이 툭 터진다.(一念爆破)'고 표현한 말이 있듯이 직관(直觀)이 터지는 계기가 매우 다양하다는 이야기다.

반산보적(盤山寶適)은 생몰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마조도일(馬祖道一:709~788)의 제자로 나와 있다. 『오등회원(五燈會元)』 권3 〈반산보적장〉에 의하면 보적이 하루는 절 밖으로 외출을 하여 길을 가다가 상여행렬을 만난다. 장송곡을 선창하는 사람이 요령을 흔들며 구성진 목소리를 내뽑으며 이렇게 창을 하듯이 읊조리고 있었다.

"붉은 해는 틀림없이 서쪽으로 가라앉겠지만 이 혼령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자 상여 뒤를 따라가던 상주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을 하고 있었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보적이 홀연히 마음이 열려 뭘 뜻이 기뻐하였다. 마조에게 돌아와 그 사정을 말해 주었더니 마조가 보적을 인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보적은 그 후 반룡산(盤龍山)에 들어가 선풍을 크게 드날렸다. 반룡산을 줄여 반산이라 하는데 이 산 이름이 그의 호가 되었다. 반산에 의해 제시된 공안이 여러 개 있다. 그 중에 '심월고원(心月孤圓)'이라는 공안이 유명하다.

『선문염송설화』 250칙에 반산이 대중에게 말한다.

"마음의 달(心月)이 홀로 둥그니, 광채가 만상(萬象)을 삼킨다. 광채는 경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요, 경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 광채와 경계가 모두 없어지면 이것은 다시 무엇인가?"

그리고 동산(洞山:良价)이 한 말을 이어 놓았다. "광채와 경계가 사라지기 전엔 다시 무엇인가?" (盤山示衆云 心月孤明 光呑萬象 光非照境 境亦非存 光境俱亡 復是何物 洞山云 光境未亡 復是何物)

두 사람이 광채와 경계를 가지고 서로 반대로 물었다. 없을 때는 무엇이고 있을 때는 무엇인가? 상대적인 두 말을 양립시켜 유(有)와 무(無)를 동시에 뚫고 나가라는 공안이다. 사량분별이 끝났을 때의 마음의 정체를 파악하라는 메시지다. '마음의 달이 홀로 밝고 그 광채가 만상을 삼키다'는 말은 선어록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명구이다.

여기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읊어놓은 송이 소개 되어 있는데 정엄(淨嚴)은 이렇게 읊었다.

"눈앞에 가득한 만물이 철저히 공한데 모두가 공했어도 공하기 전과 같네. 그 안에는 이름 붙일 필요 없나니 천고로부터의 떨치는 조사가풍이라네."

(滿目森羅徹底空 俱亡還與未亡同 箇中不用安名字 千古由來振祖風)

〈설화〉에는 청량국사의 〈화엄경소〉의 내용을 인용하여 부가설명이 나온다. '마음의 달(心月)'이란 시각(始覺)이 원만한 것이 마치 밝은 달과 같기 때문이다.

'홀로 둥글다(孤圓)'한 것은 마음은 홀로인 것이어서 둘도 없고 잡됨이 없으며, 어떠한 덕도 원만 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광채(光)'는 지혜의 비춤이며, '삼킨다(呑)'하는 것은 증득함을 얻는 것이요, '만상(萬象)'이라는 것은 삼세간(三世間) 곧 화엄경에서 말하는 기세간(器世間), 중생세간(衆生世間),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이 모두가 무량한 법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불이 증득한 경계이다. 그러기에 옛사람이 이르기를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않아 본래 고요하다(諸法不動本來寂)" 하였다. '광채는 경계를 비추는 것이 아니다(光非照境)'라고 한 것은 증득하는 지혜가 안다는 상이 없기 때문이요, '경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境亦非存)'한 것은 증득한 경계 또한 상이 없기 때문이다.

'광채와 경계가 모두 없어진다(光境俱亡)'라고 한 것은 증득하는 이와 증득하는 것이 모두 없어졌다는 뜻이요, '다시 무엇인가(復是何物)'한 것은 모두 없어진 그 때엔 그것이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니 생각건대 반산이 경문을 인용하여 선화를 삼은 것이 아닌가 한다.

자비는 모든 부처의 어머니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㉒ 즐거움 가운데 제일은

菩薩思惟。我甚畏諸有。以悲心救衆生故樂處諸有。悲心語菩薩言。我使汝處生死終不放汝。何以故。為報恩故。菩薩思惟。解脫樂為度衆生 不欲食。悲心遮我使不得食。況生死不堅牢樂。菩薩思惟。一切樂中第一佛說涅槃。是涅槃雖樂我智不欲去。所以智不欲去者悲和合故。菩薩思惟。我今敬 涅槃。所以者何。涅槃中無生老病死故。涅槃雖樂悲心所牽。為衆生故而不得去。悲心是諸佛之母。是以不捨向於涅槃。若涅槃就我猶 不證。況棄衆生而向涅槃。菩薩思惟。我欲向涅槃。悲是佛母就我與乳。云何捨去無上菩提。設當不與衆生利樂我亦不求。況復涅槃。菩薩思惟。不應向涅槃捨無歸依衆生故。悲心故使我不證涅槃。涅槃是盡生邊。若無生者何能救拔衆生。

번역 |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유위법을 두려워하지만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므로 유위법을 즐거워하리라" 합니다. 보살이 자비심으로 말하기를 "나는 그대 있는 곳에서 생사를 마치고 그대를 놓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과보를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해탈락(解脫樂)으로 중생을 제도하려 늘 탐식하지 않으리니, 자비심을 막는다면 나는 먹지 않을진대 하물며 생사의 견고하지 않은 즐거움이리오"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일체 즐거움 가운데 제일이 부처님 설하신 열반이니, 이 열반이 비록 즐거워도 나는 지혜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지혜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자비와 화합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열반을 숭상하나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열반 가운데는 생로병사가 없기 때문이니 열반이 비록 즐거워도 자비심에 매인바라. 중생을 위하여 떠나지 않거니와 자비심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라. 이로써 열반으로 향하는 것을 버리지 않되 만약 열반을 성취했어도 오히려 증득하지 못한 듯 여기리라. 하물며 중생을 버리고 열반으로 향하랴"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내가 열반으로 행하려 하나 자비가 불모(佛母)가 되어 나를 거두고 내게 젖을 주시거늘 어찌 무상보리를 버리고 떠나겠는가. 중생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으리니 하물며 다시 열반이겠는가" 합니다. 보살은 생각하기를, "응당 열반으로 향하되 귀의하지 않는 중생을 버리지 않으리니 자비심 때문에 설령 내가 열반을 증득하지 못해도 열반은 생명이 다하는 것인데 만약 생명이 없다면 어찌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리오" 합니다.

해설 | 부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천수경〉에는 '불모대준제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관세음보살의 명호가운데 하나다. 불모는 부처를 낳고 양육하는 부처의 어머니며, 〈준제경〉에서는 청정성을 불모의 성품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제바보살은 자비를 불모로 삼아 설하고 있는데, 진정한 청정성은 계행에 있는 게 아니라 자비를 바탕으로 한 자비행임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계행도 자비의 바탕에 서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결론에 쉽게 도달한다. 그래서 중생을 향한 자비 앞에서는 열반도 부질없고, 해탈락도 부질없다.

그렇다면 누가 불모대준제보살의 행을 하는 이인가? 당연히 중생을 부처로 키우는 이들이다. 수행자들은 스스로 부처의 제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되, 자칫하면 때달아 부처가 될 존재로서의 아만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공양을 받으려고만 하고, 행은 따르지 못하면서 거만하게 가르치려 한다. 이런 수행자를 받아주고 존경하며 따르는 이들은 누구였던가? 결론은 자명해진다. 스스로 자고한 생각에 빠진 수행자는 중생이 되고, 그 중생을 자비롭게 섬기는 불자가 바로 '불모대준제보살'이었음을.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